

1.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식물을 인하여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식물로 망케 하지 말라(롬 14:15)”**
2. 이 편지를 제가 읽었을 때는, 할아버지께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셨을 때였습니다. 어느 사람이 천국과 지옥을 구경하게 되었는데, 식사시간이 되어서 천사들이 진수성찬이 담긴 밥상을 들여왔다는 것입니다.
3. 그런데 놀랍게도 젓가락이 모두 석 자나 되었던 것이지요. 지옥의 사람들은 그 긴 젓가락으로 단 하나의 음식도 자기 입으로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천국의 사람들은 달랐지요. 그 긴 것으로 상대방의 입에 음식을 넣어주는 것이었습니다.
4. 저녁 때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자란 제가, 어느덧 제 아들에게 이 이야기를 다시 해 줄 때가 되었습니다. 목사가 성도에게 하듯 말했지요. 이때 제 귀에 되돌아 온 아들의 대답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로마서 14 장 17 절 말씀이었습니다.
5. 설교를 하는 것이라면, ‘서로를 위해 음식을 집어 주라’고 해야겠지요. 천국을 이루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이지요. 그러나 정작 천국이란 그런게 아닙니다. 설교도 그렇게 하는 게 아니지요. 말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선포해야 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 또한 아닙니다.
6. 어느새 어른이 된 저는, 오늘의 말씀, 15 절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형제를 네 식물로 망케 하지 말라!”** - 여기서 말하는 ‘식물’이 ‘동물’의 반댓말이 아니라는 것은 이미 알고 있지요. - 그래도 좀 배웠다고, 이걸 먹을 것을 구입할 수 있는 돈 문제라고 보았습니다.
7. 형제에서 자린고비처럼 굴었더니, 그가 곤란하게 되거나, 혹 망해서 죽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라는 명령으로 알아 들었습니다. 그러나 한걸음만 더 나가보면, 그보다 이걸, 돈이든 무엇이든, 그것으로 매개되고 형성되는 관계의 문제임을 알 수 있습니다.
8. 15 절 중반에 **“네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명령이니까 하는게 아니라, 사랑으로 해야만 한다는 것이지요. 이 구제와 선행과 관계형성을!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꼭 그런 것만도 아닌 것입니다.
9. 교회의 설교에서 우리는, 무언가 교훈이나 유익되는 정보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르고, 그 말씀을 전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지요? 하지만, 실제 그런 교훈이란 일종의 점괘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점괘로서의 설교는 유명한 스님의 훌륭한 인생조언이나 삶의 지혜에 미치지 못하지요.
10. 16 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여기 “선한 것”에다가 “설교”를 대입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한 설교가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이런 말이 성립되는 이유는? 교훈으로서의 설교는 세상 뿐만 아니라 교인들의 비방도 받기 때문이지요. 왜? 더 나은 도덕이나 효율이 나타나게 되면, 낱아져 버리는게 교훈이니까!
11.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고 설파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란 말입니까? 그걸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 그러나,

이것이 교훈이 되어서 여러분에게 명령되어질 때, 그 순간 우리의 형제는 굶어 죽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잃게 되겠지요. 설사 그 하나님 나라에 식당이나 매점이 있어도 말이지요.

12. 사실 이것은 율법을 두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율법에서, 돼지고기는 먹지 말고, 소나 양은 먹으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형제를 근심하게 한다”는 것은, 율법으로 형제를 돼지고기 먹는 자로 옳아 맨다는 소립니다. 율법으로 형제를 죄인이라 지목하고, 그 죄에 대한 댓가를 요구하지요.
13. Kampen 이란 도시가 있습니다. 이곳은 옛날부터 한자동맹에 속했던 도시여서, 그 지역에서 취급하는 특별한 상품으로 유명했지요. 소위 담배입니다. 덕분에 이 도시에는 목사 정년 문제가 없었습니다. 수명이 매우 짧았기 때문이지요. 심방을 하거나 예배를 마친 후에, 성도들은 목사님이 그 긴 시가를 다 피우기 전까지 놓아주질 않았습니다.
14. 이 전통을 만난 캄펜 유학 목사들 사이에서는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아니 목사가 어떻게 담배를? 어떤 목사님이 해명했지요. 담배 피우지 말라는 조항이 율법에 없다고! 그랬더니 에베소서 5 장 18 절을 들이밀었습니다. “술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이 아닌 것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은 모두 위법이라고.
15. 이슬람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슬람 샤리아 법에는 명예살인이란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문의 명예를 더럽힌 자식에게 다른 형제들이 돌을 던지지요. 그건 그들이 자기 형제를 샤리아 법으로 위협하고 강제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율법의 사용이 형제를 살해하고, 그와의 관계를 파괴한다는 것입니다.
16. 법대로 하는 것인데 무슨 소리냐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교정하려면 그래야 한다고 말씀하시지요. 맞습니다. 법대로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법 그 자체와 그 법의 사용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렇습니다.
17.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율법을 완전케 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가 소위 정의를 세운다는 것은 월권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우리의 형제를 비판하거나, 형제를 부딪치게 하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폐지된 것이기 때문이지요.
18. 율법에는 3 가지 사용법이 있습니다. 첫째, 율법은 그 자체로 죄를 지적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그 율법이 있음으로 해서 죄를 방지하는 기능도 하지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신 이후, 그와 함께 죽은 그리스도인들에겐 그 위협이 사라졌습니다. 아무도 우리에게 율법의 조항을 들이대면서, 이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떨어질 것이라고 협박할 수 없지요. 그 뿐만 아니라, 율법에는 제 3 사용이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19. 여기서 정의하기를, 첫번째와 두번째 기능만 사용하는 것을 율법주의라고 합니다.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 거기에 속하지요. 교회에서는, 그런 자들을 정의롭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모범을 따라, 알데이 찌포님(독사의 자식)이라고 욕하지요.
20. 왜냐하면, 여기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독사의 자식들의 것도 아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 나라는 율법이 그 세번째 기능으로 작동하는 나라입니다. 첫번째와 두번째는 이미 예수께서 다 짊어 지셨습니다. 그래서 이젠 더이상 우리와 우리 형제들이 독사의 자식들의 손가락질과 위협을 받을 수 없지요.
21. 율법의 제 3 사용이란, 율법이 내 아버지 집의 법도로서 기능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그의 백성이 천국을

살아갈 지침이지요. 교회에서 성도들이 살아가는 원칙입니다. 알고 싶고, 지키고 싶고, 또 더 잘 지키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22. 그래서 율법의 제 3 사용으로서의 교회의 법이란, 죄를 지적하고 또 죄를 방지하는 기능을 넘어서서, 성도가 교회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원칙에 따라 살아갈 지에 대한 모범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사랑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지만, 사랑하지 않으면 돌을 던지겠다고 위협하지도 않고, 사랑 못한다고 책망하지도 않습니다.
23. 그래서, 율법이 교회 안에서 그 제 3 사용으로서의 기능을 잘 할 때, 그곳을 하나님 나라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입니다. 다른 말로, 율법이 교회에서 그 세번째 기능으로 작동할 때, 의와 평강과 희락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반면, 첫째와 둘째의 기능으로서만 작동할 때, 하늘나라는 축소되고, 그 현상으로서 고소, 고발, 징계, 처벌이 난무하지요.
24. 고린도 교회에 말한 바울의 말을 빌려 보겠습니다. **사망의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고전 15:56)이라고 했습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지적하지요. 그럼으로써 정의를 내세우겠지만, 지적하는 자의 권위를 함께 드러냅니다. 이때 율법은 또한, 죄의 샅으로서의 사망을 선고함으로써, 지적받는 죄인에게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빼앗아 가지요.
25. 죄인 입장에서 보자면, 우리는 율법의 한 조항을 어기는 순간, 그 처벌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또 그 처벌이 확정되는 순간, 무너져 버리지요. 법정을 한 번 구경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형선고가 내려지는 순간, 그 죄수는 예상했으면서도, 그 선고에 정신을 놓아 버립니다. 이것이 율법이 가진 능력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었을 때, 정의가 실현되었다고는 하겠지만, 그곳이 100% 하나님 나라는 아닌 것입니다.
26. 세상은 강력하게 말할 것입니다. 죄인에게 마땅한 처벌을 함으로써 정의를 세운다고! 맞습니다. 내란을 일으킨 자들에게 법이 정한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조속하게 형을 집행하면 정의롭겠지요. 법을 타인을 공격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자기 기득권을 수호하는 도구로 사용한 자들에게서 그 권세를 빼앗고, 그들이 부린 농단 만큼 감옥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27. 드디어 김목사가 정치에 발을 담그는구나~ 하시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나라가 민주주의를 진작하고, 또 정의롭게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요 18:36b).” 단연코 말씀드리건데, 그곳이 하나님 나라는 아닌 것입니다.
28.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어디에서 지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나라에 들어가거들랑 지키라고. 처음부터 가나안 안에서나 유효했던 것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한 수단도 아니고, 또 임박한 진노를 피하기 위한 방도도 아니지요.
29. 바울이 말하길,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언약을 사백 삼십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갈 3:17)” 율법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신 이후에, 그 언약의 상속자들이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었을 때 사용하라고 준 것입니다.
30. 그래서 가나안에는 살인자를 위한 도피성이 마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율법은, 그것을 배우고 익혀서, 우리 자신의 정의를 내세우라고 준 것이 아니지요. 형제의 흠을 돋보기 보듯이 살펴 홍보거나 정죄하라고 준 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 나라를 은혜의 왕국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31. 간음의 현장에서 붙잡혀 온 여인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세상의 심판자이십니다. 그들의 죄를 물으실 자이시고, 율법의 주인이십니다. 그러한 그가 그녀의 죄를 대신하시고, 그녀에게 죄를 묻는 대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당부하시지요. 그 순간 그 자리에는 율법이 제 3 사용으로 시행되는 자리,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